



제주 어린이도서관 운영 경험 동티모르에

글로벌이너피스 도서관 조성
딜리 타이베시·아파우루 2곳
설문대도서관 노하우 등 적용
두 섬 탄생 설화 도서도 제작

제주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의 운영 노하우가 동남아시아의 섬나라 동티모르로 향했다. 제주의 국제개발협력단체인 글로벌이너피스가 제주도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지난 연말 동티모르 딜리에 만든 어린이도서관을 통해서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이너피스가 2017년부터 동티모르에서 시행해 온 ODA 과정에서 설립된 동티모르 지부와 현지 CQR(Centro Quesadhip Ruak) 재단이 2020년에 맺은 업무 협약이 바탕이 되었다. 당시 협약은 동티모르의 아동과 청년들을 위한 교육활동 다양화를 목적으로 체결했다.

도서관은 동티모르의 수도인 딜



타이베시 어린이도서관 이양식 현장.

사진=글로벌이너피스

리에 있는 2개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조성됐다. 딜리 공항에서 10km 거리에 있는 타이베시와 딜리항에서 배로 3시간이 소요되는 아파우루 두 곳으로 정부의 교육 정책 혜택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는 지역이다. 어린이도서관은 타이베시 시민의 집, 아파우루 시민의 집 안에 각각 들어섰다.

두 어린이도서관의 장서는 2021년 12월 말 기준 400권씩 총 800권에 달한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

천 받은 한국의 어린이 도서를 번역해 비치했고, 동티모르에서 구입 가능한 현지어와 포르투갈어 도서도 분야별로 구비했다. 특히 이 사업에서는 동티모르에 전해오는 악어 설화와 제주의 설문대할망 설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기념도서를 제작·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이너피스는 제주시 연동에 있는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의 노하우를 현지에 알렸다. 도서관 인력을 대상으로 어린이 독

서 프로그램과 독서 활동 연수를 실시하는 등 운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고은경 글로벌이너피스 이사는 “앞으로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제주와 동티모르의 동화책을 서로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라고 했다. 글로벌이너피스의 강경희(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표는 “사업지 중 한 곳인 아파우르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동티모르의 유명 관광지로 제주와 유사한 점이 있다”며 “향후 제주와 아파우루의 도서관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글로벌이너피스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시민사회협력’을 통한 개도국 코로나19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0년 아파우루에서 식수 시설과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긴급 지원 사업에 나섰다. 올해는 3~5세 유아영양개선 지원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해녀에서 검은소까지 동심으로 펼친 세상

제주 작가 어린이 책 잇따라
동시집·그림책 등 소재 다양

동심으로 펼친 세상이 있다. 동시, 동화, 그림책 등 해녀에서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출간된 어린이 책들을 만나보자.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장승연 시인은 유년의 추억이 밴 ‘연이는 꼬마 해녀’ (생각나눔, 1만 2000원)를 묶었다. 시인의 네 번째 동시집으로 학창 시절의 자전적인 해녀 경험과 바다를 둘러싼 자연 환경의 의미를 아이들의 마음으로 풀어냈다.

시와 동시를 쓰고 있는 김정희 시인은 ‘사라져가는 제주생물문화-어른과 아이가 함께 읽는 제주 동시 그림책’이라는 ‘폭낭 알로 놀레온 곰새기’ (한그루, 1만 6000원)

를 내놓았다. 작가는 “제웃말이 사라지면 제주 사람들의 정신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신기영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김섬 작가의 ‘이구나나 마구아나’ (장수하늘소, 1만 3000원)의 표지엔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만 보세요”라는 문구가 달렸다. “어떻게 하면 게임에서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을까”란 작가의 오랜 걱정과 고민이 반영된 동화로 “끊임없이 연습하여 마음대로 변신하는 마구아나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부디 세롭게 변신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듯 한 줄 한 줄 이어갔다”고 했다. 그림은 우철 작가가 담당했다.

부북정 작가는 동화 ‘멋진 녀석들’ (한그루, 1만 2000원)을 냈다. 자전적과 두 친구를 중심으로 등장 인물마다 각기 다른 시점으로 본 사건이 펼쳐진다. 그림은 한향선

작가가 맡았다.

김정배의 ‘사라진 골짜기’ (한그루, 1만 3000원)는 김은진의 그림이 더해진 동화로 한라산 아흔아홉골 전설을 모티브로 썼다. 먼 옛날 제주에 살았던 소년 순돌이와 하늘 나라에서 내려온 아기 호랑이의 우정과 모험이 있다.

고상훈 글, 한향선 그림의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한그루, 1만 5000원)는 초등 교사인 작가가 실제 여자축구부를 지도했던 경험이 바탕이 된 동화다. 승패와는 상관없이 자신만의 공을 힘껏 차는 아이들의 도전기다.

김란 작가의 ‘차롱밥 소풍’ (한그루, 1만 5000원)은 차롱밥을 들고 드넓은 뒷산을 누비고 다녔던 할머니의 열한 살이 담겼다. 소박하지만 정답던 그때 그 시절로 떠나보자. 김정희의 그림이 함께한다.

‘푸른 눈의 돼지신부’ (온누리드앤피, 1만 5000원)는 맥그린치 신부(1928~2018)가 모델이 된 그림책

이다.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에서 행한 사랑의 실천을 기리기 위해 제주맥그린치신부기념사업회에서 제작했다. 그림책 수익은 말기암 환자 요양 시설인 이시돌 복지위원을 돕는 데 사용된다.

김민수 작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검은소 이야기’ (한그루, 1만 5000원)는 흑우를 부활시키려는 한 청년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림책이다. 그동안 사진 작업으로 검은소의 가치를 알렸던 작가는 이번에 세밀한 붓질로 검은소를 화면 안에 살려냈다.

용천수(산물)와 봉천수(물통) 등 물 관련 구술체록을 이어오고 있는 제주도와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는 그림책 ‘세미와 산물이’ (비매품)를 발간했다. ‘제주 사람들은 어떤 물도구를 썼을까’란 주제 아래 수목화로 표현한 ‘산물이’ 캐릭터를 이용해 해안과 중산간 마을의 물문화를 아이부터 어른까지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진선희기자

40여 년 문학이란 별판 답사한 여정 ——‘김병택문학전집’ 발간에 부쳐

제주 출신 번역가이자 소설가인 김석희 작가가 ‘김병택문학전집’ (국학자료원, 총 10권) 발간에 부친 글을 보내왔다. ‘김병택문학전집’ (한라일보 2021년 12월 31일 자)은 2021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원로예술인지원 사업으로 출간됐다.

오래전에 번역한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학비평은 사랑을 빚진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비평의 개념을 바꿨다고 평가받는 세계적인 석학 조지스타이너(1929~2020)의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에 나오는 첫 문장인데, 문학비평의 역할에 대한 유명한 선언입니다. 비평이 마치 문학의 선도자인 양 나서서 창작된 작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던 기존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며,

는 “어떤 주제로 논문을 쓰더라도 김윤식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스승이기도 한 김윤식 선생을 새해 벽두에 떠올린 것은 지난 연말에 ‘김병택문학전집’을 받고 느낀 소감 때문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전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간간히 소식을 들었고, 잘 나와야 할 텐데 하는 염려 섞인 기대감을 안고 책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막상 결과물을 대하고 보니 기쁘고 찬탄하는 마음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컸던 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우리 제주문학도 이만한 업적을 이룬 문학자-비평가를 가졌다는 뿌듯함 말입니다.

지역문학에 쏟은 애정과 열정
제주문학의 특수성 파헤치고
정체성 확립한 저작 등 의미

작품이 있기에 비평이 있다(따라서 비평은 창작에 빚지고 있다)는, 비평의 존재이유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 명제를 비평의 태도로 삼아 활동한 이들은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는 김윤식 선생(1936~2018)이 우뚝합니다. 국문학자이자 비평가였던 선생은 생애를 온통 읽고 쓰는 데 바쳤는데, 선생의 성실하기 그지없는 책임기는 작품(상상력)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고, 그 이면에는 “나는 창작자가 될 수 없다”는 회한과 겸손이 스며 있었습니다. 선생은 책임기를 통한 문학 연구와 비평에 헌신하며 200여 권의 책을 썼고, 한국문학의 근대성을 파헤쳐 집대성하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국문학계에서

총 10권으로 묶여 나온 전집에는 김병택 교수가 40여 년 동안 문학이라는 별판을 답사한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국문학자로서 한국문학 일반을 탐색한 성과도 유익미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제주대 교수로서 지역 문학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쏟은 노고입니다. ‘제주 현대문학사’는 제주문학의 지역적 특수성을 파헤쳐 그 정체성을 확립한 저작으로, 그 바탕 위에서 제주문학은 변방의 소외감을 떨치고 독자적인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주예술의 사회사’는 김 교수의 폭넓은 관심과 소양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으로, 그 덕분에 제주문학(나아가 예술)은 일단 집대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뒤이는 작업은 김 교수의 제자와 후학들의 몫이 터인데, 그들은 이제 김병택이라는 우뚝한 봉우리 앞에서 한숨을 내쉬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저 봉우리를 어찌 넘을꼬?”

<김석희 작가>

취임



당선

애월읍이장단
협의회장

제22대 애월읍
연합청년회장



고 정 학



이 경 민

애월읍이장단협의회장 취임과 제22대 애월읍연합청년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광령2리 리민 일동

승



진



고 평 기

(부천원미경찰서장)
(부: (故)고이연 · 모: (故)강준향)

경 무 관

경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 족 일 동